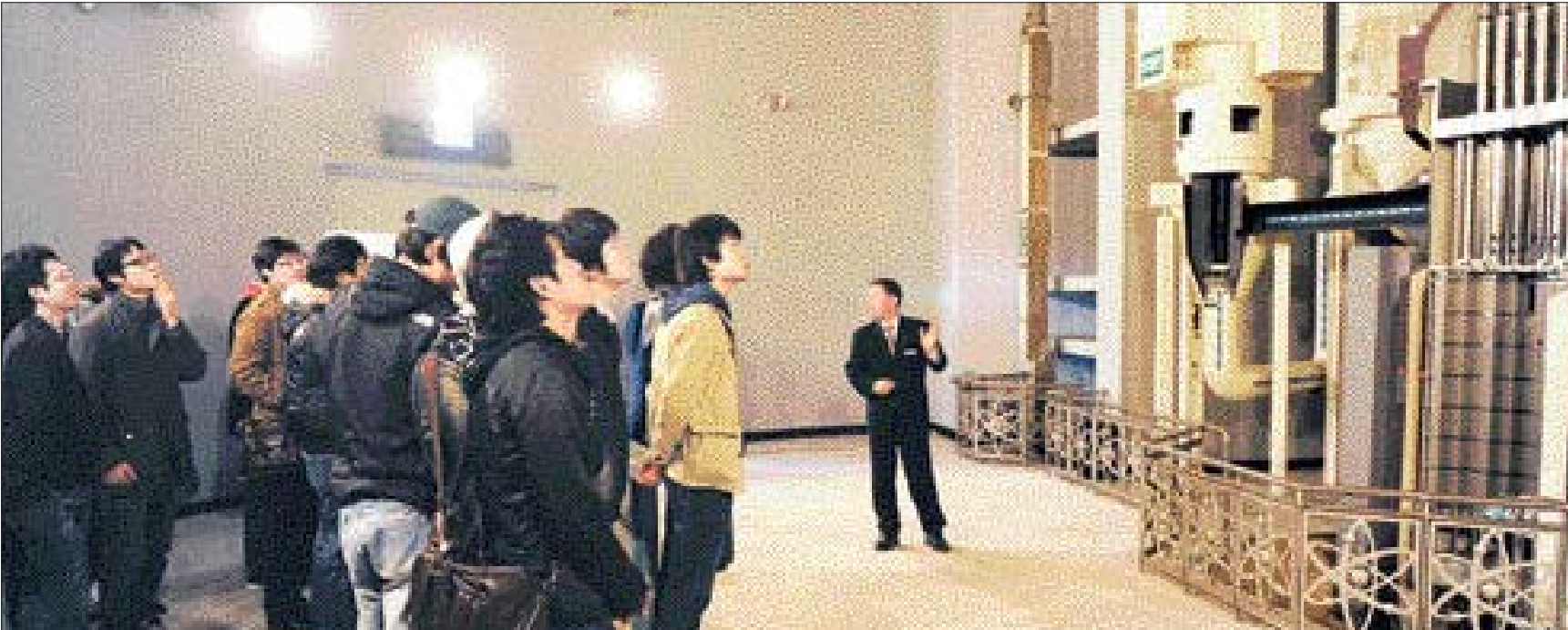




본사 주관 '2008 대학생 에너지 캐러밴' 성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한 '2008 대학생 에너지 캐러밴'에 참가한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지난 22일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홍보관에서 각종 원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미래는 밝다”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2008 대학생 에너지 캐러밴'이 지난 22일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행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일보사가 주관했으며,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후원했다. 조선대 원자력공학과와 동산대, 광주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에너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관련학과 학생 등 100여명 참가

행사는 최근 정부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 발표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과 관련, 청년 층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류용빈 광주시 과학산업과장은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와 광주·전남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과장은 광주과기원 내에 위치한 광주·전남 에너지센터, 조선대에 건설 중인 태양에너지 실증단지 및 신재생 에너지 교육홍보관, 광주시 남구 행암동 신효천마을 태양광주택 단지 등 광주·전남에 보급된 신재생 에너지 활용사례를 폭넓게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류 과장은 "광주는 이미 솔라시티 사업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한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전남은 영광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며 "에너지 주권이라는 단어가 생경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차세대를 이끌 대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 제고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강사인 정운관 조선대 공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정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43.6%에 달하는 석유의 비중은 2030년 33%까지

낮아지고, 원자력은 현재 15.9%에서 27.8%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2.5%에서 10.7%로 비중이 커진다.

정 교수는 "원자력의 경우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 등의 장점으로 현재 26%인 설비 비중이 2030년까지 41%로 커질 전망"이라며 "이를 위해 신규 원전 부지 확보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숙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은 석유나 수력, 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원가가 월등히 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저하게 낮지만 안전성이나 수용성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의 35.5%를 원자력이 맡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 울진 등 4개 지역에서 20기가 운영 중이며, 세계 6위 규모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견학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영광의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로 이동, 2부 일정을 이어갔다. 이들은 한수원 기관 소개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구조설계와 터빈실 등을 견학했다.

행사에 참석한 현성희(여·19·조선대 원자력공학과 1년)씨는 "원자력이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39원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해 월등하게 경제적이다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에너지의 국제적 동향과 광주·전남의 현실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경진 조선대 공대 부학장은 "막연하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고, 그 비율은 청년층으로 갈수록 크다"며 "에너지 주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이번 행사가 나름의 역할을 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강사 발표 내용 요약

“광주·전남 에너지 인프라 좋은 편”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방안

광주·전남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어 보유한 장점들을 잘 이용해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2011년 까지 진행 중인 솔라시티 1단계 사업을 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점, 전남은 풍력이나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광주 솔라시티 사업은 1천900여억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30개를 유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3%로 끌어 올리고 2020년에는 온실가스 20만t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 남야신도시를 선시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부터 167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청 및 공원 내 태양광 발전과 공공기관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과 함께 태양광 및 풍력 가로등이 보급된다.



류용빈

전남은 특히 전국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여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수산단이 위치한 전남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2006년 기준 3천95만toe로 전국

소비량(1억7천358만toe)의 18.9%에 달한다. 미국의 대통령도 최근 2015년까지 1천500억불을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 환경친화적 에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 다른 곳에 뒤처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지금 대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관련 공부를 했을 때 취업의 길도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시 과학산업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위해 원자력 필수”

정부, 1차 에너지 기본계획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에 대해 편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선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39원에 불과하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의 단가 800원, 200원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극히 적어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손색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44%인 석유 의존도를 2030년까지 33%로 낮추고, 화석에너지 비중도 83%에서 61%로 하향조정된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는 2.4%에서 11%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36%에서 59%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15%에서 28%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도 10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처럼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국가 차원에서 늘린다는 것



정운관

도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탄소배출량은 석탄이나 가스 에너지의 40분의 1, 석유 에너지의 30분의 1 수준이다.

안전성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고장 정지율이 호당 연간 1건 미만이며,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가 안전하다고 답해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렇지만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모든 공학적 산물이 양면성을 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길 바란다.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리=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최상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에 투자하십시오

영광군에 투자하시는 분께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1. 투자유치 지원금	2. 임대료 지원금	3. 인건비 지원금	4. 교육훈련비 지원금	5. 기술개발비 지원금	6. 마케팅비 지원금	7. 컨설팅비 지원금	8. 기타 지원금
1. 투자유치 지원금: 투자액에 따라 지원금 지급	2. 임대료 지원금: 임대료의 일정 비율 지원	3. 인건비 지원금: 인건비의 일정 비율 지원	4. 교육훈련비 지원금: 교육훈련비의 일정 비율 지원	5. 기술개발비 지원금: 기술개발비의 일정 비율 지원	6. 마케팅비 지원금: 마케팅비의 일정 비율 지원	7. 컨설팅비 지원금: 컨설팅비의 일정 비율 지원	8. 기타 지원금: 기타 지원금 지급

영광군에 투자하시는 분께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에 대해 소개합니다.